

다니엘서 - 번호 94

예언적 틀의 베일을 벗기기: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권세 이해하기

Jeff Pippenger

2024-02-27

윌리엄 밀러가 적용한 예언적 틀은 이교 로마 다음에 교황 로마가 뒤따르는 두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들의 구조였다. Future for America가 적용하는 예언적 틀은 이교 로마에 이어 교황 로마, 그리고 배도한 개신교로 이어지는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들의 구조이다. 로마의 세 가지 양태는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세 가지 황폐하게 하는 권세들이다. 그 틀은 1989년에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빛에 맞서 제기된 저항을 통해 상당 부분 인정되었다.

로마의 첫 두 가지 현현은 로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현현인 현대 로마의 예언적 성격을 밝혀 준다. 현대 로마는 말세의 최후의 삼중 박해 권세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분명히 다른 것이 바벨론의 세 가지 현현이다. 첫째는 니므롯의 바벨이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바벨론이었다. 이 두 예언적 증거가 함께 현대 바벨론의 예언적 특성을 밝혀 준다. 한 측면에서 현대 로마와 현대 바벨론은 동일한 실체이지만, 바벨론의 세 가지 현현은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과 죄의 사람의 오만을 드러낸다.

바벨론의 몰락은 성경 예언에서 크고도 구체적인 주제이며, 로마 교황의 교만도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일곱 마지막 재앙을 쏟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밝히려 오는데, 이는 곧 바벨론의 몰락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7:1-3.

천사의 임무는 이마에 "MYSTERY BABYLON"이라고 쓰인 여인에 대한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주홍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였으며, 그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 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하였다. 그녀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었고, 내가 그 여자를 보았을 때 크게 이상히 여겼다. 요한계시록 17:4-6.

교황권이 말세에 자신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지정학적 장치는 "신성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으로 묘사된다. 그녀가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다는 사실은, 기수가 말 위에 타는 것처럼, 그녀가

그 짐승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그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8.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빛 짐승’은 현대 로마를 가리키며, 마지막 때에 여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정학적 구조를 나타낸다. 그 여자는 현대 바벨론, 곧 음행을 저지르고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성이다. 창세기 11장의 바벨과 다니엘서 4장과 5장의 바벨론으로 나타난 바벨론의 처음 두 모습은 마지막 때 현대 바벨론의 교만과 몰락을 묘사한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심판받는 그 여자는 현대 바벨론이며, 그녀가 지배하는 짐승은 현대 로마다. 그녀는 왕들과 음행하였고, 그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창세기 2:24.

현대 로마와 현대 바벨론은 하나이지만, 그들의 몇몇 예언적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별되어 있다. 바벨과 바벨론이라는 두 증인에 의해 확증된 바와 같이, 현대 바벨론의 이야기는 그녀의 교만과 최후의 몰락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 북방 왕은 교황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로마의 교황은 사탄의 지상 대표자다.

“세속적 이익과 영예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호의와 지원을 구하도록 인도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 교회는 사탄의 대리자인 로마의 주교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유도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의 욕망은 하나님의 정치적 보좌와 종교적 보좌를 빼앗는 것이었다.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대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쇠약하게 하던 자여, 어찌 그대가 땅에 짝혀 넘어졌는가! 이는 그대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또한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음이라. 이사야 14:12-14.

사탄은 왕권의 상징인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높이려 했다. 하나님의 별들은 천사들이며, 하나님의 통치 체제의 작동 구조를 상징한다. 사탄은 "또한" "북쪽의 끝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기를 원했다. 그 회중은 교회이며,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북쪽의 끝에 있다. "북쪽의 끝"에 있는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북방의 왕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는 참된 북방의 왕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기를" 원했다.

고라 자손을 위한 노래와 시.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읍, 그의 거룩하신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위치가 아름답고 온 땅의 기쁨인 시온 산은 북쪽 편에 자리한, 큰 왕의 성읍이다. 그 성읍의 궁전들에서 하나님은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시편 48:1-3.

사탄의 지상 대표는 로마의 주교(교황)이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는 로마 교황의 최후의 흥기와 몰락이 묘사되어 있으며, 거기서 교황은 북방 왕으로 나타난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며, "catholic"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두 왕좌(정치적 및 종교적)를 모방하기 위해, 말세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등장할 때 전 세계적인 종교 체계를 갖추려는 목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만들었다.

이교와 기독교 사이의 이 타협은 예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로 예고된 '죄의 사람'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 거대한 거짓 종교 체계는 사탄의 권세가 빚어낸 걸작—그가 자기 뜻대로 땅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보좌에 앉으려 한 노력의 기념비다. 대쟁투, 50.

사탄은 참된 북방의 왕이 앉아 계신 권위의 두 보좌를 모조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종교 체계와 전 세계적인 정치 구조를 세웠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열 왕들, 즉 마지막 때에 음녀가 그들과 음행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상징하며, 그 짐승은 이마에 '바벨론'이라 기록된 여자의 다스림을 받는다. 17장에서 그 열 왕들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심판이 묘사된다. 바벨론의 세 가지 모습은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을 지목한다. 로마의 세 가지 모습은 그녀가 군림하는 정치 구조를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현대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을 다루며, 다니엘서 11장 44~45절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최후의 몰락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언급되지만, 18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상세히 다루어진다. 다니엘서 11장이 묘사하는 현대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 14장의 세 천사에 대한 묘사와 17-18장의 최후의 몰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절과 구절을 맞대어 종합해야 한다. 다니엘서 11장에서는 현대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이 그녀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가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곧 바다와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를 도울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1:45.

다음 절에서 미가엘이 일어나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 그 절은 "그 때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현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녀는 홀로 멸망한다. 셋째 천사는 세상이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 나뉘었음을 드러냄으로써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을 알린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현대 바벨론과 그녀의 권위의 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쏟아진다.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것은 그의 분노의 잔에 섞음이 없이 부어진 것이라; 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9-12.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시작되는 점진적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때 둘째의 음성이 하나님의 다른 양 때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른다. 21절에 이르면 은혜의 문 닫힘이 드러나며, 이로써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으로부터 미가엘이 일어설 때까지의 기간이 큰 박해 속에서 현대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로 규정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이같이 격렬하게 그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되리라. 또 네 안에서는 수금 타는 자와 음악가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이라도 네 안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네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등불의 빛이 네 안에서 다시는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네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장사꾼들이 땅의 귀인들이었고 네 주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음이라. 또 그 성 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음이라. 요한계시록 18:21-24.

돌이 던져지는 것, 연주자들과 일꾼들의 침묵, 촛불이 꺼지는 것,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잠잠해짐은 모두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은혜의 시간이 끝남을 나타낸다.

다니엘서 11장을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예언적으로 겹쳐 놓고, 이어 그 두 본문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위에 겹쳐 놓아 보면, 여러 진리 가운데서도 현대 바벨론의 최종적 몰락을 나타내는 세 가지 예언의 흐름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세 흐름 각각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권세 가운데 하나를 대표한다. 다니엘서 11장은 짐승(교황권)을 지목한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같은 역사를 제시하지만, 거짓 선지자(미국)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동일한 예언의 흐름을 지목하지만, 거기에서 제시되는 역사는 용(유엔)에 초점을 맞춘다.

세 개의 선은 각각 1798년의 마지막 때에 시작한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은 “그리고 마지막 때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절의 처음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1798년을 가리키며, 그 절이 1989년에 성취되었을 때에도 역시 “마지막 때”였다. 이는 예수께서 어떤 중요한 사실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고자 하실 때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화이트 자매는 요한계시록 13장도 1798년에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리고 교황권이 그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하도록 강요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며 같은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 전쟁을 벌일 마지막 권세인 이 권세는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시대의 징조, 1899년 11월 1일.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798년에 시작되는 예언의 흐름은, 미가엘이 일어설 때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닫힐 때까지 계속된다. 1798년에 시작되는 예언의 흐름은, “세력을 빼앗긴 교황권이 박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시작되어,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으로 끝난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교황적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여 주려고 올 때, 요한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광야”의 맨 끝으로 옮겨진다. 영적으로 1798년에 놓인 요한은 현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으로 시작되며, 그 음성은 교황권이 그 시한부 은혜 기간의 잔을 가득 채웠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맷돌이 바다에 던져질 때, 곧 은혜의 시기가 닫힐

때까지 계속된다.

줄에 줄을 더하며, 이 세 줄은 현대 로마의 왕들과 음행한 현대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을 드러낸다. 다니엘 11장은 북방왕으로 표상된 교황권을 증언한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증언하고, 17장과 18장은 용(열 왕)의 역할에 대해 증언한다. Future for America가 사용하는 예언적 틀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권세에 기초한다.

바벨과 바벨론의 두 증인은 현대 바벨론의 예언적 특성을 밝힌다. 그 두 증인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교황의 교만에 대해 말한다. 그 두 증인은 또한 그의 최후의 몰락도 밝힌다. 바벨론의 세 가지 양상으로 표현된 교황의 자기 높임과 최후의 몰락이 예언적 역사에 대한 비전을 정립한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남방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또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이 이상을 이루려 하여 스스로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바빌론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한 고찰을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너희가 그 죄들에 동참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갑절로 갚아라. 그가 채운 잔으로 그에게 갑절을 채워 주라. 그가 자신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주라.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슬픔을 보지 않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재앙들이 하루 만에 임하리니, 곧 죽음과 애통과 기근이라. 또 불로 완전히 태워질 것이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능하시다.' 요한계시록 18:4-8.